

2022년 10월 국내외 위성 관련 산업 동향

< 목 차 >

I. 위성관련 산업 및 기술동향

1. 러시아 위성 사용 협정 놓고 멕시코 ‘스파이’ 논란 시끌
(원문) <https://www.yna.co.kr/view/AK20221011000800087>
2. 머스크 “한국에도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서비스”
(원문) <https://m.segye.com/view/20221012519400>
3. 전세계 위성의 16%가 군사위성, 갈수록 커지는 우주 안보·국방력
(원문) <https://m.khan.co.kr/politics/defense-diplomacy/article/2022101915065001#2b>
4. 우크라 전쟁으로 러시아가 거부한 원웹 위성, 인도서 발사
(원문) <https://www.mk.co.kr/news/world/view/2022/10/937690/>

II. 위성관련 소식

1. 러시아 전쟁으로 발사 못한 초소형위성 '도요셋' 누리호로 발사
(원문) <https://m.dongascience.com/news.php?id=566883>
2. 아마존 위성 인터넷, 2023년 1분기 발사한다
(원문) <https://techrecipe.co.kr/posts/46371>
3. 1km 상공 '플라잉 카' 띄울 6G 위성 2026년 첫 발사
(원문) <https://www.hankyung.com/economy/article/2022101857291>
4. 北미사일 잡을 '조기경보위성' 2030년 도입 추진
(원문) <https://www.secdaily.com/news/view/26039FBC6W>

III. 위성 관련 보도자료

1.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자 허가기준과 주파수 사용 승인방식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내놓을 계획이다” 는 사실이 아님
2. 2025년, 전세계 위성항법분야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모인다

III. 보도자료

1 “저궤도 위성통신사업자 허가기준과 주파수 사용 승인방식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내놓을 계획이다” 는 사실이 아님

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, '22. 10. 11.

□ 기사내용(디지털타임스, ' 22.10.11.)

- 정부가 5G 28GHz 주파수 대역을 쓰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열어줄 계획
- 관련 업계에 따르면, 과기정통부는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자 허가기준과 주파수 사용 승인방식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내놓을 계획
- 우리 정부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관련 기준을 검토하고 있음

□ 설명내용

- 과기정통부는 5G 28GHz 주파수 대역을 쓰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열어줄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없음
 - 또한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자 허가기준과 주파수 사용 승인방식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기준도 결정한 바 없음
- 다만 28GHz 대역에서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 활용에 대한 업계 건의*가 있었으나,
 - * 제11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('22.9.30.)
 - 아직 공식적으로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 신청이 들어온 기업이 없음

2025년, 전세계 위성항법분야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모인다 - 대한민국, 제19차 UN ICG(국제위성항법위원회) 연례회의 유치 -

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, '22. 10. 16.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이종호, 이하 '과기정통부')와 외교부(장관 박진)는 지난 10월 14일에 폐회한 제16차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(UN ICG*) 연례회의에서 2025년에 열릴 예정인 제19차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 연례회의를 우리나라가 유치했다고 밝혔음

※ International Committee on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, 국제위성항법위원회

-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는 위성항법기술의 활용 증진을 위한 유엔 산하의 정부 간 위원회로서 2005년에 출범하였으며, 위성항법시스템의 신호·서비스 확산·활용·성능향상 등에 대한 회원국 간 협의·조정 등을 위해 각국의 정부 관계자 및 기술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하는 연례회의를 매년 하반기에 회원국 중 한 곳에서 개최함

- 현재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에는 위성항법시스템 또는 위성기반보강 시스템을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13개 회원국*과, 위성항법의 개발·활용과 관련된 12개 준회원** 및 9개 참관기구***가 참여 중임

* 韓, 美, 러, 中, EU, 인도, 日, 伊, 말레이시아, UAE, 호주, 나이지리아, 뉴질랜드

** UN OOSA(UN 외기권 업무 사무소), CGSIC(민간 GPS 서비스 연결 위원회) 등

*** ITU(국제전기통신연합), COSPAR(우주연구위원회), APSCO(아태우주협력기구) 등

-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·항법·시각*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(KPS)** 개발을 올해부터 추진 중임

- 이에 정부는 위성항법시스템 보유 국가들과 신호·주파수·서비스·기술개발 등에 관한 양·다자 협력 통로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의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 가입을 추진하여, '21년에 우리나라의 회원국 신청이 승인된 바 있음

* 위치(Position), 항법(Navigation), 시각(Timing) ** Korean Positioning System

-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회원국 자격으로 참석한 이번 제16차 연례회의는 10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아랍 에미리트 연합(UAE) 아부다비에서 개최되었으며, 마지막날 열린 총회를 통해 2025년 예정인 제19차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 연례회의를 유치하였음

- 유엔 산하 위원회인 국제위성항법위원회의 연례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(KPS) 개발 현황 및 위성항법 활용성과 홍보, 위성항법분야 기술교류 활성화, 우리나라 전문가·기업들과 각 회원국 전문가들 간의 협력 확대 등이 기대됨

-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“2025년 연례회의 개최를 계기로, 기존 위성항법시스템을 보유한 美(GPS), 러(GLONASS), EU(Galileo), 中(BDS), 인도(NavIC), 日(QZSS) 등 6개국과 함께 우리나라도 위성항법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것” 이라고 밝혔음

- 외교부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“UN 산하 우주분야 핵심 위원회 중 하나인 UN ICG 연례회의의 한국 유치는 UN 내 과학기술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영향력이 제고 중임을 보여주는 예로서, 앞으로 UN 등국제기구를 통한 과학기술외교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” 이라고 밝혔음